도민주권실현 플랫폼 '제주다담' 출범

진정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민주권실현 플랫폼'을 기치로 하는 제주다담이 지난 11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명의 회원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정철 카피라이터, 홍인숙 제주도의원, 강성의 제주도의원 등 도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주다담은 지역 및 직능 중심으로 구성된 분과 운영을 통해 '재미있는 제주도(감귤 수확봉사, 오름 피크닉)',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도(정책세미나, 주민참여예산)', '지역이 사는 제주도(환경보전 플로깅 등)'를 토대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거 시즌에는 각급 후보들에 대한 공개정책 질의 등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한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공동 대표에는 문윤택 제주국제대교수협의회장과 남태우 제주의료원 노조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제주도, 2022안전문화대상 대통령 표창

제주도는 1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문화 의식 향상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대한민국 안전 분야 최고의 상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는 주제로 매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을 실천과제로 삼고 지난 2월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등 11개 유관기관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내 읍·면·동 자생단체들과 협업해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했다.

제주엔젤렌트카 두차례 연속 CCM 인증

제주엔젤렌트카(대표 강영민, 김재린)는 최근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렌터카 업체 중 유일, 제주도 렌터카에서는 최초로 재인증 받게 됐다.

제주엔젤렌트카는 제주를 여행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신차 증대, 키오스크 설치, 여행지도 배포, 자사 할인존 운영, 완전면책(자차)보험 제공, 자체 정비팀 보유, 차량준비팀 신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외국인 예약 사이트, 본사 키오스크, 슈퍼 면책(자차) 보험 도입을 추진했다.

강영민 대표는 "제주 렌터카 인식 개선과 고객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R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

제주시새마을회(회장 박경호)는 지난 8일 하니크라운호텔 별관 연회실에서 '3R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와 한림읍새마을부녀회가 자원재활용품 종합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를, 한림읍새마을부녀회가 헌옷모으기운동 부문에서 최우수를 수상했다.

시새마을회 관계자는 "올해 1974t에 6억3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에 따른 판매 수익금으로 사랑의 수의 전달,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 경로잔치, 김장담그기 등 이웃사랑 실천 운동으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병삼 제주시장, 박경호 제주시새마을회장, 강봉기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장, 홍경애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 등 130명이 참석했다.

정병식 신진기업사 대표 이웃사랑 성금

정병식 신진기업사 대표는 지난 7일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동장 한지연)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신진기업사는 16년째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외도동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병식 대표는 "앞으로도 힘 닿는데 까지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수익금 기탁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조합장 강병진)는 지난 8일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농협의 사회적 책임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하나로마트 수익금 중 일부인 44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하귀농협은 2011년부터 해마다 하나로마트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해오고 있는데, 올해까지 총 4억6000만원의 공익기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구좌합창단 지역에 이웃돕기 물품 전달

구좌합창단(단무장 김순영)은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를 방문해 생필품, 휴지 등 100만원 상당의 이웃 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구좌합창단은 2002년 구좌읍 여성 농업인, 주부 등으로 창단한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 요양원 힐링음악회를 열어오고 있다.

동정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 참석

◇양병우 제주도의회 의원 1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리는 '2022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

자원봉사·후원자 송년 행사 격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 13일 파크선샤인 제주에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

제주 언론학술상에 정용복·김형훈씨

정용복 박사

김형훈 국장

(사)제주언론학회(회장 김동만)는 '2022 제3회 제주언론학술상'으로 '우수논문상'에 정용복 언론학 박사의 '나는 왜 기록했는가:초창기 제주4·3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대항기억'을, '저술상'에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의 '나는 제주 건축가다'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용복 박사의 '나는 왜 기록했는가…'는 4·3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기억을 구술, 분석한 논문이다. 이를 통해 초창기 제주4·3 다큐멘터리가 4·3의 무엇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조명하고 미디어의 기억 공간 속에서 재현되는 4·3의 사회적 기억은 어떤지를 탐색했다.

'나는 제주건축가다'는 김형훈 편집국장이 제주에서 활동하는 19명의 젊은 건축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제주제일고 35회 동문회 장학금 기탁

제주제일고등학교 35회 동문 송기택 회장, 김명수·이승철 동문은 지난 9일 제주제일고(교장 김월룡)를 방문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제주제일고 동문들은 10~11일 한화리조트에서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30주년 행사'도 개최했다.